



건설산업 활성화 간담회 대한건설협회 도회(회장:오인철)는 15일 정선국토관리사무소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건설산업 활성화와 지역업체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19일 강원경제인 한마음대회

도내 기업인 40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선진 경영전략을 배우고,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교류하는 '강원경제인 한마음 대회'가 19일 평창 알펜시아에서 열린다.

강원경제단체연합회가 지난해 발족된 이후 처음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업인이 앞장선다는 취지로 일자리 안심공제 협력 협약이 진행된다.

또 지역경제 현안인 평창동계올림픽 추진 현황과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업 대응전략 등에 대해 최문순 도지사, 도내 대학 교수들이 나와 특강을 한다. 신하림기자 peace@



대한건설협회 도회 간담회 대한건설협회 도회 (회장 오인철)는 15일 정선국토관리사무소를 방문, 도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협 강원도회, 지역 건설산업 발전 위한 간담회 참석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회장 오인철)는 15일 정선국토관리사무소를 찾아 도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역업체의 공사참여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건설업 1분기 실적 '好好'... 매출액 6% 켑중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6.9%로 1.1%p 상승

주택경기가 호조를 보이면서 올해 1분기 건설업의 수익성과 안정성 등 경영지표 대부분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2017년 1분기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작년 1분기 대비 올해 1분기 건설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6%에 이른다. 뒷걸음질 친 지난해 1분기 증가율(-0.7%)보다 6.3%포인트 뽀 것이다. 다만 전 산업의 1분기 매출 증가율(7.9%)보다는 낮다.

건설업종의 수익성도 크게 개선됐다. 1분기 건설업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6.9%로 지난해 1분기 5.8%보다 1.1%포인트 상승했다. 한은

측은 "주택경기가 개선되면서 건설의 매출액과 수익성 지표가 좋아졌다"고 분석했다.

건설업의 부채비율 등 안정성 지표의 개선 흐름도 뚜렷하다. 지난 1분기 건설업의 부채비율은 151.6%로 전 분기 155.1%보다 소폭(3.5%포인트) 낮아졌다. 지난해 1분기 189.9%를 나타냈던 건설업 부채비율은 지속적으로 떨어져 1년 만에 40%포인트 가까이 내려갔다. 차입금 의존도도 지난해 1분기 26%에서 올해 1분기에는 20.1%로 떨어졌다. 영업이익이 늘어나면서 외부자금 조달 필요성이 낮아졌고, 지속적인 자본 확충이 부채비율을 낮춘 것으로 풀이된다.

권해석기자 haeseok@

LH "공사대금 체불 원천 차단" '하도급지킴이' 내달 전면 도입

LH(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는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 대여대금, 노무비 등 공사대금의 체불을 차단하기 위한 '공사대금지급 관리시스템(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을 오는 7월부터 전국 건설현장에 전면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사대금지급 관리시스템은 발주기관이 온라인을 통해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하고 공사대금 지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조달청에서 개발·운영 중인 은행 연계 공사대금지급 관리시스템이다.

LH는 그동안 시스템 운영에 따른 행정업무 및 공사원가 증가와 영업상 비밀 노출 등 건설업계의 우려로 체불 현장 일부에만 선별적으로 이를 적용해 왔다. 그러나 '체불임금 제로 시대'라는 새 정부 정책 기조에 적극 부응하고, 공정·투명한 건설생태계 조성과 사

회적 약자인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해 LH의 전국 건설현장에 하도급지킴이를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LH는 하도급지킴이의 전면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3월 화성동탄2 신도시 49개 현장에서 대규모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이어 4월에 LH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권역별 시스템 운영교육을 실시하고 5월에는 동영상 교육자료를 제작·배포하는 등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쳤다.

박현영 LH 건설기술본부장은 "연간 발주금액이 11조원에 달하는 국내 최대 건설사업 발주기관인 LH가 새 정부 출범에 맞춰 투명하고 공정한 선진 건설문화 정착을 선도하겠다"며 "이런 노력이 다른 공공기관, 민간 부문으로 계속 확산돼 건설문화 일대 혁신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석한기자

방파호안 1공구 오늘 첫삽... 2공구도 발주 초읽기

동해항 3단계 개발사업 '착착'

2000억대 턴키 '2공구' 착공엔
재정사업분 대형공사 착수 마무리
민자부문 사업자 선정도 채비

강원 동해항 3단계 개발사업(조감도)이 본격화되고 있다.

동해항 3단계 방파호안 1공구 축조공사는 지난달 현대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돼 16일 착공한다. 2공구 공사는 낙찰자 선정을 위한 발주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2공구도 대형사 격돌 가능성 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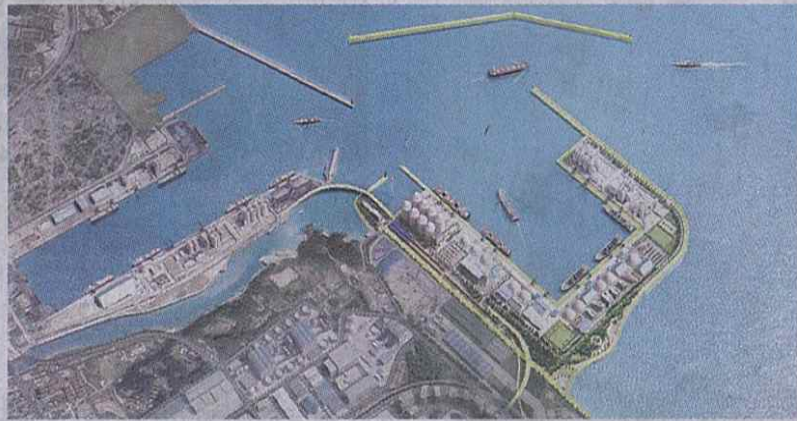
15일 조달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동해 지방해양수산청은 최근 조달청에 동해항 3단계 방파호안 2공구 낙찰자 선정을 위한 계약을 요청했다. 총 공사금액은 2015억 7100만원 규모로, 조달청은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을 적용해 입찰공고할 예정이다.

방파호안 2공구는 호안(1016m)과 해안 보호대책시설 1식, 부대공 1식 등을 건설하는 것으로 오는 12월 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입찰 일정을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강원 동해항 3단계 방파호안 2공구 발주가 임박하면서 물밑 수주전도 점화됐다. 당초 동부건설, 한라가 검토했지만 참여를 접기로 해 1공구에 이어, 2공구 역시 대형사 간 경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참여를 가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곳은 현대건설이다. 현대건설은 지난달 1공구 시공권을 거머쥔 기세를 몰아 2공구 시공권 도전에 나설 태세다.

또 다른 대형건설사 참여는 이달 낙찰자 선정이 가려지는 부산항 신항 토도 제2공구(대림산업·대우건설·한양 3파전)



와 울산신항 남방파제(2-2공구) 축조공사(포스코건설·SK건설 2파전)가 변수다. 이 중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이 참여를 좀 더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2개 물량에 대한 낙찰자가 가려지고 나야 수주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민간사업자 유치도 곧 시작

동해항 3단계 개발사업은 총 사업비 1조 5851억원을 투입해 동해항의 체선율(12시간 이상 선박이 정박하는 비율)을 낮추고 시멘트 등 원자재 물동량 증가에 대비해 선석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오는 2021년까지 동해항의 하역능력은 기존의 2200만t에서 4100만t으로 늘어나고 접안능력도 16척에서 23척으로 확대된다.

사업은 크게 재정(8214억원)을 통한 방파제(1.85km)와 방파호안(2.3km), 관리부두 등의 건설과 민자사업(7658억원)으로 최대 10만t급 7선석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구분된다.

재정사업 가운데 지난해 5월 북방파제(1.7km) 공사가 시작됐고, 이번에 후속사업으로 방파호안 1공구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지난해 12월 턴키 방식으로 입찰이 진행된 방파호안 1공구 사업은 호안(1298m)과 동방파제(150m), 부대공 1식 등을 건설하는 내용으로 올해 공사를 시작해 2021년 완료를 목표로 한다.

올해 안에 방파호안 2공구 사업까지 착수되면 동해항 3단계 개발사업 가운데 재정투자분의 대형공사 착공이 사실상 완료된다.

동해항 3단계 개발사업이 본격화되면서 민간사업자 유치도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방파호안 공사와 병행해 신설부두에 대한 민간 투자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성준·권해석기자 newspia@